

慶北 北部地方의 「뜰집」과 '二字·ㄷ字·튼口字型' 住居의 空間構成 比較 研究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spatial construction of '□-typed House' and '=, ㄷ, Open-□-typed House' in North Kyungbuk Area

金 華 峰*
Kim, Hwa-Bong

Abstract

The middle and high residences of the Chosun Dynasty in North Kyungbuk Area are based on □-typed plans. It is supposed that their basic type is developed from more simple type. This study compares □-type and more simple types, that is = and ㄷ and open-□-type. Maybe, building process of □-typed plan is similar to the spatial and constructional characteristics of incomplected □-types. Their theoretical bases are described by the comparison of plan and space and structure and roof's construction.

I. 序 論

朝鮮時代의 中上流 傳統 住居를 대표하는 ㄷ字型 住居는 조선 後期에 와서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지만, 가장 많은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은 慶北 北部地方이다. 이 ㄷ字型 住居는 慶北 北部地方의 경우 지역 주민들간에 「뜰집」¹⁾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이 유형은 慶北 北部의 넓은 지역에 분포함으로써 각 지역

의 특성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내기도 하고, 폭 넓은 계층을 포함함으로써 여러 규모의 유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뜰집」의 주거유형은 다양한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성을 가진 유형이 다른 특성의 유형과 서로 만나 상호작용하여 서로의 특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의 수용과 적응과정 및 주거 문화의 변화발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慶北 北部地域에는 「뜰집」 이외의 中上流 住居로서 「二字집」과 「ㄷ字집」, 「튼口字집」 등의 주거유형이 존재하며, 완결된 ㄷ字型 住居인 「뜰집」은 그 유형의 형성과정에서 많은 실험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분포지역에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1) 서경태·김화봉, 「뜰집」平面的 行列間 分化에 관한 研究,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41집, pp.313-332, 1996.

공존하는 유형들의 配置와 空間使用 및 架構 構成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空間 構成을 比較 研究하는 것은 「뜰집」의 發生過程 혹은 發展過程의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二字집」과 「ㄷ字집」, 「튼ㄷ字집」의 특성이 「뜰집」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뜰집」의 空間的 紀元을 민가의 「여칸집」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보다 규모가 비슷한 中·上流 住居로 그 형성과정의 견해를 근접시키려 함에도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현장조사한 자료를 평면 및 공간 상부지붕구조의 관점으로 분석하며, 「뜰집」의 분포권과 같은 지역에 분포하는 「二字집」과 「ㄷ字집」, 「튼ㄷ字집」의 空間 構成의 특성을 比較 分析한다.

II. 「뜰집」 및 「二字·ㄷ字·튼ㄷ字집」의 공간 구성

1. ㄷ字型 住居에 대한 기존의 概念

ㄷ字型 住居의 유형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영훈²⁾은 낙동강 東岸의 살림집을 「까치구멍집」, 「ㄷ字型집」으로 나누고, 「ㄷ字型집」 안에 「트인 ㄷ字型집」과 「날개집」을 포함시켰다. 「트인 ㄷ字型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지형에 따라 ㄷ자형의 앞줄을 분리시켜 건축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폐쇄성의 산곡간집과 개방성의 평야성 집이 절충된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규정지를 만한 배치인데, 트인 ㄷ자형 배치라고도 하고 ㄷ자형에 一자형을 덧붙혀 보강한 배치라고도 할 수 있다. 대략은 「트인 ㄷ자형」이라 속칭하나 이

것이 학술명칭이라고는 꼭집어 말하기 어렵다.” 그의 「트인 ㄷ字型집」의 유형을 주로 ㄷ자에 근거하여 형성된 주거에 한정하고 있다. 그는 또한 “까치구멍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작은 안마당이고, 마루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방이 배치되는 평면구성인데, 이 안마당과 마루에 해당하는 부분을 큼직한 내정으로 확장시키면 ㄷ자형의 집이 된다”고 한다. 이 개념은 공간적 설득력이 매우 커 거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민가에서 급격히 상류주거로 비약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중간 규모인 「二字집」과 「ㄷ字집」, 「튼ㄷ字집」들을 조사 연구하여 그 중간과정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김홍식³⁾은 포괄적인 「ㄷ자집」의 계열을 「한일자집」, 「안곱은자집」, 「튼ㄷ자집」, 「규모가 작은 ㄷ자집」, 「규모가 큰 ㄷ자집」으로 세분한다. 이 중 「튼ㄷ자집」을 「모퉁이 대문간집」, 「모서리 대문간집」, 「사랑마룻방집」, 「대문간이 없는집」, 「아래 대문간집」, 「대청을 향한 대문간집」, 「尸자집」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의 「튼ㄷ자집」의 기본 계열은 모두 「L+Γ」字의 구성이며 각 유형들은 모두 경기도 및 중부지방에 분포하는 사례들로서 「L+Γ」字집이 중부지방의 민가유형인 「Γ字型」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의 경우 「뜰집」은 「규모가 큰 ㄷ자집」의 계열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평면의 유형적 개념은 공간상의 연관성이나 구조적 관련성을 직접 비교한 분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북 북부 지방에 집중하고 있는 「뜰집」과의 공간적 구조적 특성을 공유하는 「二字집」과 「ㄷ字집」, 「튼ㄷ字집」과의 유형적 연관성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뜰집」의 概念

「뜰집」은 학술적 개념에 의해 규정된 용어는

2)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1983, pp.146-153.

3) 김홍식, 한국의 민가, 1992, pp.424-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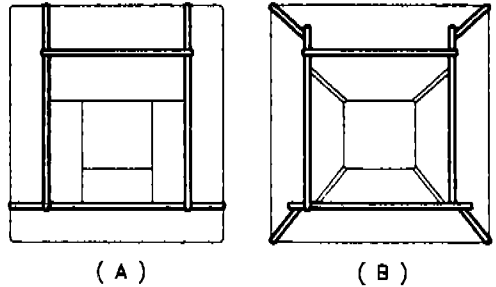
아니다. 일반적인 안마당인 '뜰'을 중심으로 方型으로 둘러싼 주거를 경북북부지방에서 통칭하는 용어이며, 지역 주민들의 개념에는 完結型의 口字집과 ㄷ字집의 모두 포용하는 관용성이 있다. 이 용어가 통용되는 지역은 蔚珍, 盈德, 奉化, 英陽, 靑松, 安東, 榮州, 醴泉 등이며, 安東西部와, 榮州, 醴泉등에는 '口字집'이라는 용어를 보다 즐겨 사용하고 있다. 많은 연구⁴⁾에서 口字型 住居의 慶北 北部地方의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뜰집」의 평면적 특성은 서경태·김화봉(1996)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架構 및 지붕의 특성을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뜰집」의 지붕구조는 '서산각집'과 '우산각집'으로 나뉜다.

'서산각집'은 맞배형을 기본으로하여 모서리 부분이 결합되어지는 형식으로서 익랑의 맞배지붕 용마루 위에 안채의 맞배가 놓이는 형상으로 측면에서 박공이 높이 드러나게 된다. 이는 전면에도 동일하여 전면에서 박공이 뱃집의 지붕 위에 드러나는 집이다. 따라서 안마당에서의 처마선은 각각 높이가 달라 지붕이 3단의 구성을 하고 있으며, 자연히 안채의 높이를 높게 조성하여야 되며, 안마당의 채광에 유리하여 안마당이 좁은 주거일수록 이러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둥의 높이의 경우도 '서산각집'은 기둥머리의 보가 각각 높이가 다른 高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산각집'의 경우는 기둥머리에서의 높이가 똑 같은 平柱의 개념으로 건축되어 있다.

'우산각집'은 모서리부분이 추녀로 결합되어지는 유형으로 측면에서 박공이 높이 나타나지 않으며, 전면에서는 팔작집의 외관을 하고 있다. 네 모서리를 모두 '우산각집'으로 구성할 경우에

는 기둥머리의 보 높이는 모두 동일한 수평을 이룬다. 따라서 안마당의 처마선도 동일하다. 이 유형은 규모가 작은 주거 보다는 큰 안마당을 갖는 주거에 유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지붕을 평면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서산각집'(A)과 '우산각집'(B)의 지붕 평면

「뜰집」의 가구는 3랑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기둥의 실학사상의 영향 이후로 보여지는 朝鮮 後期에 건축되어지는 「뜰집」은 전반적으로 반점집 혹은 점집의 평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5랑으로 구성된다. 특히하게 蔚珍지역에서는 4檁의 構造⁵⁾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가구의 구조를 비교하면 '여간집'의 경우는 5랑으로만 가능한 주거이며 기둥은 모두 平柱의 개념으로 건축되어 있다.

3. 「二字집」과 「ㄷ字집」, 「튼口字집」의 概念

본 연구에서 「二字집」과 「ㄷ字집」, 「튼口字집」은 “한 채 혹은 두 채 이상의 건물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를 이루는 주거”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들을 ‘기본 배치 유형’, ‘채와 채간의 관계에 따른 구성’, ‘안채와 사랑채의 관계-전면형/측면형’, ‘안채의 기본 평면구성-중부형/민가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가지며, 유형별 사례는 <표 1>과 같다.

4) 「뜰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연구자는 장성준(1978)이며, 김홍식(1980)에서 지역적 개념을, 김태현(1988)에서 유형적 개념을 얻고 있다.

5) 曹成基, 蔚珍·三陟地方의 口字形집의 4檁構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1권 제12호 통권 86호, 1995.12.

<표 1> '二字型집', 'ㄷ字型집', '튼口字집'의 유형 및 사례(사례의 짙은 가옥이 분석대상)

유 형					사 례	
주거형	배치형	내외유형	사랑유형	안채유형		
'二字집'		분리형	전면형	민가형	석계고택(영양원리), 김시춘(안동지례), 김인구(안동지례)	
'ㄷ字型'	전면 개방형	연결형 (\cap)	측면형	중부형	문현덕(문경대상), 권녕식(예천저곡)	
				민가형	이원순(하회), 풍양택(예천상금)	
	측면 개방형	분리형 ($+ \cap$)	측면형	중부형	권오웅(영덕인량)	
				민가형		
		연결형 (\cap)	전면형	중부형	심재홍(청송덕천), 정인철(예천우망)	
				민가형	황홍주(상주만산), 유시영(문경재도)	
	분리형 ($+ \cap$)	전면형	중부형	총장택(문경녹문)		
			민가형	고시부(문경신전), 정원상(예천삼강)		
'튼口字집'	한채형	연결형	측면형	중부형	영덕충효당(영덕인량), 남진성(영덕피시)	
				전면형	중부형	도곡충효당(영덕도곡), 월담헌(영양하원)
					민가형	윤대수(예천신풍)
	두채형	연결형 ($+ \cap$) ($+ \cap$)	측면형	중부형	정만수(예천청곡), 이회태(양동), 이원룡(양동)	
				민가형	낙선당(양동), 무첨당 정침(양동), 이원봉(양동)	
			전면형	중부형	이종은(영덕인량), 전정웅(영덕인량), 심영택(청송덕천), 방복출(청송부곡), 김홍락(봉화오륙), 조창섭(예천유동), 정만수(예천청곡), 류석호(하회), 채희경(문경현리), 권익(예천상동), 윤남노(예천청북)	
				민가형	심명섭(청송광덕), 류서하(하회), 류시성(하회), 류진하(하회), 윤석걸(예천신풍), 류시협(하회)	
				측면형	민가형	수졸당(양동)
					전면형	중부형
	민가형	김희(문경내화), 김정훈(문경서중)				
	세채형	분리형 ($+ \cap$)	측면형	중부형	권대영(하회), 유재천(예천벌방)	
				민가형	이향정(양동), 류시준(하회)	
전면형			중부형	김희대(안동지례)		
			민가형	고상현(문경녹문)		
네채형	영남 남부지방의 일반형(연구에서 제외)					

「二字型집」은 모든 주거유형의 근거인 오막살이집의 「一字型」을 모체로하여 발전된 유형이면서 이 지역에서는 사랑채와 안채의 사이를 담장으로 막아 출입을 통제하고 대문간을 사랑채에 부속시킨다. 영남 남부지방에서의 일반적으로 사랑채를 측면으로 우회하는 안채 출입동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二字집」의 유형은 「뜰집」의 공간구성에 비교되는 폐쇄적 공간구성으로는 가장 소규모의 주거유형으로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ㄷ字집」은 전반적으로 예천과 문경, 상주지방인 낙동강 西岸에서 조사되고 있는 유형이다. 즉, 慶北 北部地域에서도 낙동강 東岸이 山岳地域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平野地域를 배경으로 개방적 배치구성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전체의 지붕이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과 「뜬ㄷ字型」이라 할 수 있는 분리형으로 구성형식이 나뉘어지며, 배치에 따라 전면 개방형과 측면 개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이 이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므로 유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공간적 해석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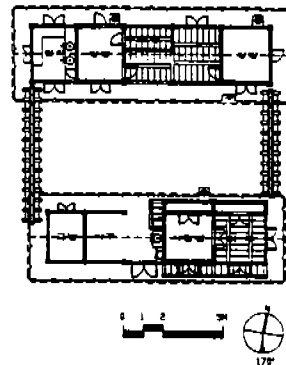
「뜬口字집」의 유형은 안채의 구성형상에 따라 다양한 패턴이 형성된다. 우선 전체의 연결구성에 따라 완전히 연결된 「한채형」이 있고, 두 동으로 이루어진 「두채형」은 「|+ㄷ」, 「┌+ㄷ」과 「└+ㄷ」, 「ㄷ+ㄷ」의 형태로 나뉘어진다. 「세채형」의 경우, 안채가 「一字型」인 유형은 嶺南 中南部에 분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안채가 「ㄷ字型」을 근거로 하는 「|+┌+ㄷ」의 경우만을 한정한다.

이들은 모두 사랑채의 위치에 따라, 안채의 위치에 대해 「정면형」과 「측면형」으로 나눈다. 또, 안채의 평면에 따라, 기본 주거형인 「오막살이」 유형에 근거한 부엌-안방-마루가 일자형으로 구성되는 「民家型」과 중부지방의 「ㄷ」자형에 근거하여 마루와 부엌이 안방을 중심으로 「ㄷ」자로 꺾이는 「중부형」으로 분류한다.

Ⅲ. 類型別 事例 分析

「二字型집」, 「ㄷ字型집」, 「뜬口字집」을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으며, 실측은 1994~1996년 봄 사이에 연구자와 동참자에 의해 수차의 답사로 이루어졌으며, 도면은 ACAD로 작성되었다.

1. 「二字型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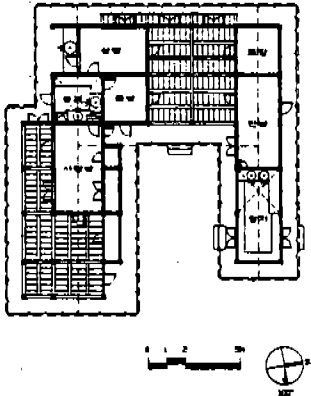
<그림 2> 석계고택(영양군 일월면 원리)

石溪 李時明(1590-1678)의 고택으로 1640년에 영덕에서 이곳으로 離居하여 지은 집으로 분석 대상가옥 중에는 가장 오랜 건축연대를 가진다. 안채와 사랑채가 평행하게 있고, 양측면을 담장으로 폐쇄하였다. 안채는 민가형으로 5間の 중앙에 2間 마루를 둔 전형적인 南部型 民家에 근거한 주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채의 중앙으로 대문간을 둔 것이나, 안방 옆에 도장을 달아만든 것(후대의 증축으로 민가형의 지역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담장으로 안마당을 막은 기법은 영남 남부지방의 공간기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북북부지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거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안마당은 약간 경사진 지형을 평탄하게 만들었다. 동쪽에 사랑채를 서쪽에 마루와 고방을 두었다. 지붕은 모두 맞배구성을 하고 있다.

2. 「ㄷ字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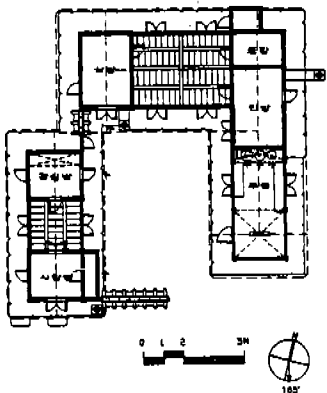
1) 前面 開放型 : 이 유형은 한채집과 두채

집으로 구분되어지며, 새채집은 이지역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연구에서 배제한다



<그림 3> 문현덕 가옥(문경군 산북면 대상리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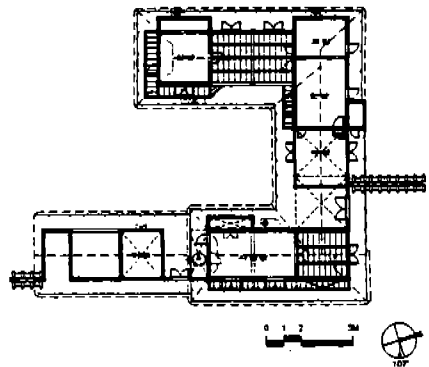
문현덕 家屋은 前面 開放型 중 한채형의 경우이다. 조선 철종대(1852년)에 건축한 것을 현소유자의 조부가 매입하여 3대에 기거하고 있는 주거이다. 안채는 완전한 곁집의 구성이고 사랑채는 반곁집으로 되어 조선 후기적 특성이 강하다. 남서쪽에 있는 대문에서 사랑 측면으로 진입하다, 안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개방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지붕의 구성은 서산각집의 구성을 취하고 있어, 사랑채 부분의 증축의 여지가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주거이지만, 전체의 기본 구성은 '뜰집'의 공간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림 4> 권오웅 가옥(영덕군 창수면 인광리 422)

권오웅 家屋은 前面 開放型에서도, 두채형의 경우이다. 거주자의 10대조에 건축된 약 300여년 전의 건물로서, 원래 뜰집이었는데 화재로 일부 소실되고 후에 증축하여 현재의 구성을 취하고 있는 주거이다. 따라서 안채는 뜰집의 '서산각집'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채는 일차형의 3間 맞배집으로 안채의 서쪽에 서향하여 위치한다. 그로 인하여 생긴 안마당의 전면의 시각적 개방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랑채 옆으로 담장을 막아 안마당의 일부를 폐쇄하고 있는 공간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감실방과 상방이 만나는 부분의 공간도 담장으로 폐쇄하여 안마당 공간의 위요감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구자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주거 유형에서 안마당을 폐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側面 開放型 : ㄷ자로 구성된 연결형과 '┌┐'로 구성된 분리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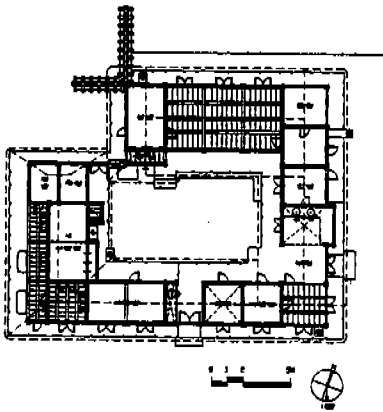
<그림 5> 심재홍 가옥(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68)

심재홍 家屋은 1933에 건축된 근세의 주거이지만, 근대적 요소는 찾아볼 수 없고 側面 開放型 'ㄷ'字집의 전형적 구성을 보여준다. 중부형의 안채 평면을 바탕으로 사랑채가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채의 부분은 지붕이 팔각으로 다시 높혀져 있고 대문채는 원래 초가로 되었던 것을

슬레이트로 개조하여 대문간의 부분이 낮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안채는 「우산각집」의 구성과 동일하지만 상방에서 그 구성이 끝을 맺고, 지붕을 팔작을 이루었다. 이는 「우산각」의 기본형이 팔작집이므로 소규모에서도 맞배지붕으로 하지 않는 당연한 마무리로 보아진다. 양측으로는 담장을 쌓아 안채로의 진입은 대문간만으로 가능하다. 안마당의 측면으로의 개방감을 보상하기 위한 담장의 구성으로 보인다.

3. ㄷ口字집

1) 한채형 : 이 유형은 주거 전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에 해당하는 주거유형으로 보통 안마당의 규모를 크게 확보하기 위한 의지가 전체 배치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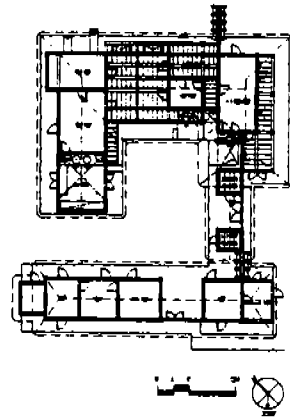


<그림 6> 이용태 가옥(영덕 충효당, 영덕군 창수면 인량2리)

이용태 가옥은 재령이씨의 종가로서 성종대(1469-1494)에 건축했다고 하나, 사랑채의 구성으로 보아 후대의 증 개축으로 원형이 변화된 것은 분명하다. 즉 초기에 「서산각집」을 바탕으로 한 「뜰집」의 구성에서 증축한 주거이다. 안채의 「서산각집」 구성의 그대로 두고 사랑채를 반결집 및 「우산각집」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도곡 충효당」이나 「영양 월담헌」의 경우

와 동일하다. 즉 원래 전면 한간의 사랑방이 상방으로 이어진 구성에서 새사랑방의 증축으로 늘어난 구성인 것이다. 이는 「내칸 안마당집」의 규모를 취하는 일반적 「뜰집」의 구성과는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이들이 보통 「민가형-우산각집」의 안채구조를 가지는 것과는 달리 안채 「중부형-서산각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주거의 변화(증축)과정을 보여주는 명확한 예로 사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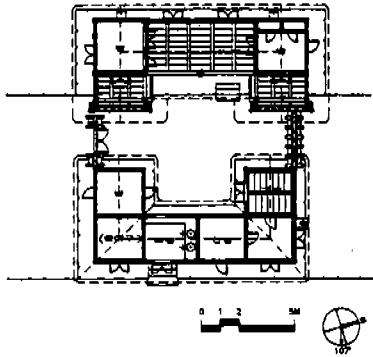
2) 두채형 : 이 두채형은 안채의 유형에 따라 연결형(ㄷ+1)과, 분리형(ㄷ+ㄱ)으로 나뉘나 특수한 경우인 「ㄷ+ㄷ」의 경우도 있다.



<그림 7> 정만수 가옥(예천군 풍양면 청곡1리 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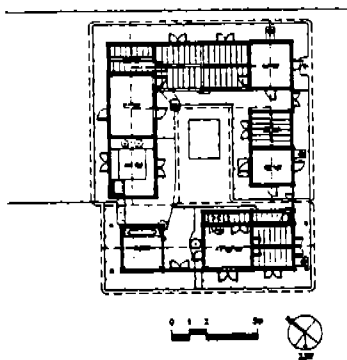
정만수 가옥은 연결형(ㄷ+1)의 대표적 사례로서 거주자의 祖父가 인근 우망동에서 분가하여 1900여년경에 건축되었다. 본채 ㄷ자의 구성은 「우산각집」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사랑채 옆으로 대문채를 붙여 구성하였고, 아래채는 별동으로 사이에 담장을 두어 막았다. 안채 부엌과 행랑채 사이에는 넓은 간격으로 개방되어 낙동강 서안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행랑채에도 사용할 수 없는 대문간이 있는 것은 일반적 「뜰집」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ㄷ口자구조에서 사랑채와 안채가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사례이며, 평면은 안채는 곁집, 사랑채는 반곁집의 조선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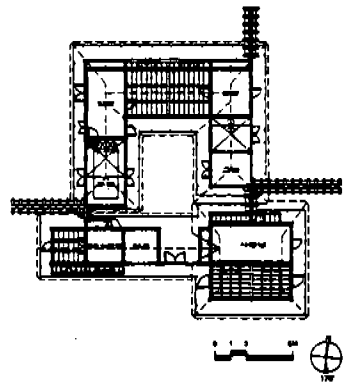
<그림 8> 권세훈 가옥(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安東 權氏의 僕射江派의 파종가로서 1800년경 精舍로 지어진 것으로 지금은 齋室로 사용되고 있다. 살림을 위한 건물로 볼 수는 없고, 본채와 아래채가 대칭적 구성을 하고 있는 독특한 구성이며, 폐쇄형 안마당으로 구성되어 가려는 강력한 건축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경사지의 지형을 이용하여 아래채로써 안마당을 폐쇄적으로 구성하면서도 본채의 전망 및 채광권을 확보하고 있다. 안채의 지붕은 ‘서산각집’의 구성을 취하고 있고, 아래채는 ‘우산각집’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서산각과 우산각이 결합된 드문 예이다.



<그림 9> 이중은 가옥(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117)

이종은 가옥은 ‘튼口字집’에서도 ‘안채ㄷ자형-폐쇄형-사랑전면형’의 대표적인 예로서 증부형 안채와 일자형 사랑채의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유형은 경북 북부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며,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진다. 분리형 ‘뜰집’이며, 채의 간격은 한간 이내의 이격거리를 가지고 그 사이는 담장으로 막아 완전한 폐쇄적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 채의 분리로 인해 일반적 ‘뜰집’보다는 안마당의 깊이가 깊어졌으며, 더구나 지붕의 분리로 인하여 ‘2간 폭’뜰집’보다 훨씬 밝은 마당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심영택 가옥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212)

심영택 가옥은 ‘튼口字집’의 유형에서 사랑채의 규모가 확장되어가고 있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뜰집’의 ‘날개형’으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유형과 거의 동이한 구성이다. 사랑채는 팔작지붕을 하고 전면에 빗마루를 설치하는 등 근대적인 특성을 이룬다. 이 주거의 사랑채는 현거주자인 조부가 매입하여 사랑채만 증축한 것으로 안채의 건축년도인 1910년보다 30여년 뒤에 지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종은 가옥과 심영택 가옥은 ‘튼口字집’에서 사랑채가 전면에 위치하는 구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뜰집’의 구성과 거의 동일하고 채의 分離現象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이들의 형성과정이 대개 수년에 걸친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전면의 채가 몇년 혹은 수십년 뒤에 건축되어 지기 때문이다. 심영택 가옥의 경우는 다시 사랑채를 개축한 흔적이 연결부위에 명확히 나타나는 여러번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V. 「二字집」과 「ㄷ字집」, 「튼ㄹ字 집」과 「뜰집」의 特性 比較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례의 구성 유형을 다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 「二字型집」의 特性

「二字型집」은 남부지방에서 일반적인 안채와 사랑채의 分離 現象을 반영하는 주거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차이점은 두 동의 사이를 담장으로 막아 폐쇄적인 안마당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안채로의 출입은 前面의 대문간 만으로 가능하다.

<표 2> 사례의 배치 및 지붕 구성 유형

도번	사 례	주 소	배치형	사랑채 지붕유형	안채 지붕유형	안채 기둥구성
2	석계고택	영양군 일월면 원리	二 型	맞배	맞배	평주형
3	문현덕	문경군 산북면 대상1리 32	ㄱ 型	맞배	서산각	고주형
4	권오용	영덕군 창수면 인량2리 422	1 + ㄱ 型	맞배	서산각	고주형
5	심재홍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68	ㄷ 型	팔작	우산각	평주형
6	영덕 충효당	영덕군 창수면 인량2리	튼ㄹ자 한채형	우산각	서산각	고주형
7	정만수	예천군 풍양면 청곡1리 706	튼ㄹ자 두채/ㄷ+ㄱ 型	팔작	우산각	평주형
8	권새훈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튼ㄹ자 두채/ㄷ+ㄷ 型	우산각	서산각	고주형
9	이종은	영덕군 창수면 인량1리 117	튼ㄹ자 두채/ㄷ+ㄱ 型	맞배	서산각	고주형
10	심영택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212	튼ㄹ자 두채/ㄷ+ㄱ 型	팔작	우산각	평주형

이것은 소규모의 주거유형에서 閉鎖的 안마당의 空間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주거유형은 또한 전후채의 전면 규모가 거의 같다는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兩側面을 담장으로 막기에 유리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또한 남부지방의 작업마당이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넓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유형은 사랑채 앞의 공간이 작업마당 역할을 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구성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은 「뜰집」의 閉鎖的 안마당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嶺南 南部地方과 비교하여 「閉鎖型 二字집」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2. 「ㄷ字집」의 特性

「ㄷ字집」은 경북 북부지방에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유형이지만, 몇몇 사례를 통하여 空間構成의 多變性을 제시해주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ㄷ字」의 구성이 前面으로 개방된 「ㄱ字型」인지, 側面으로 개방된 「ㄷ」 혹은 「ㄷ字型」인지에 따라 공간의 기본 특성은 크게 달라지며, 그 용도도 다르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측면 개방형」일 경우는 담장으로 막아 폐

쇄의 속성이 강하고 전면 개방형일 경우는 「뜰집」의 변형에 의한 특수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들의 架構의 構成은 대부분 「서산각집」의 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본적인 空間의 構成 概念은 「뜰집」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뜰口字집」의 特性

「뜰口字집」에서 「한채형」은 낙동강 동안의 산곡간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으로 중부형 안채의 속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강하며, 낙동강 서안의 경우에는 민가형의 안채형을 이루면서 규모가 크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뜰집」의 규모를 안마당의 크기로 볼 때 「4간폭 안마당」 이상의 경우는 거의 민가형의 안채평면을 이루는 것보다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4간폭 안마당」 이상의 규모는 영덕 영양지역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역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채형」의 「뜰口字집」의 유형은 「연결형」과 「분리형」이지만 「연결형」은 고른 지역적 분포를 가지는 반면 「분리형」은 낙동강 서안에만 주로 분포하고 있다. 「연결형」은 안채가 중부형이나, 민가형에 공히 비슷한 사례로 나타나며, 지역적으로도 가장 광범위한 분포를 갖는 가장 일반적 경북북부지방의 「뜰口字집」 사례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뜰집」과는 공간 구성 및 가구의 형성에 있어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채형」은 전체구성이 「+」+「+」형으로 분리적 구성의 속성이 강한 주거 유형이다. 분포지역은 일반적으로 낙동강 서안에 위치하고 있어 평야를 배경으로한 개방적 지역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뜰집」의 속성과는 가장 차이를 가지고 있다.

V. 結 論

이상의 몇가지 예로써, 「二字집」과 「ㄷ字집」,

「뜰口字집」의 특성을 「뜰집」과 비교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二字집」 민가형 안채의 속성이 강하나 이 지역에 전래되어와 폐쇄형의 공간구성으로 변화되었다.

2. 「ㄷ字집」 중 「전면 개방형」은 「뜰집」의 속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역적으로 서쪽은 개방형의 동쪽은 폐쇄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3. 「ㄷ字집」 중 「측면 개방형」은 특히 북부지역에서 낙동강의 西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낙동강 東岸인 북동부지역에는 개방형주거의 유형은 많이 조사되고 있지 않다. 이는 山地型과 平地型의 지형적 특성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뜰口字집」 중 「한채형」은 중부형 안채의 속성이 강한 경북 북동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두채형」의 「연결형」은 전반적인 분포를 가지는 반면 「분리형」은 경북 북서지역에서만 나타난다. 「세채형」을 전반적인 사례가 부족하며 낙동강 서안에서 나타나는 개방적 평면 유형이다.

5. 지붕의 架構의 形式은 「二字집」과 「ㄷ字집」, 「뜰口字집」들이 모두 「서산각집」과 「우산각집」이라고 하는 「뜰집」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산각집」의 구성을 취하며, 朝鮮 後期에 지어진 건축일수록 「우산각집」의 특성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뜰집」의 주거유형은 그와 평면적, 공간적, 지붕구성적 공통점을 「二字집」과 「ㄷ字집」, 「뜰口字집」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뜰집」의 형성과정은 오히려 이러한 유형들 중에서 그 閉鎖性을 얻기 위한 보다 完結型의 住居로서 제시된 주거일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북 북부지방의 일부 지역(安東, 奉化)에서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여칸집」은 平面이나 架構 構造上 「뜰집」과는 보다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二字집」과 「ㄷ字집」, 「뜰口字집」으로 그 규모를 키워가는 주거 유형들에서 「뜰집」의 形成 紀元을 두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 중

「ㄷ字집」, 「튼ㄷ字집」의 경우 안채가 中部型인 유형만을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조사연구가 실시되어야한다고 생각되며, 민가형 평면을 기초하고 있는 「ㄷ字집」, 「튼ㄷ字집」의 유형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뜰집」과의 연관성이 보다 포괄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金泰鉉, 朝鮮後期 ㄷ字型 住宅의 構造와 部材比例에 關한 研究, 흥익대 석사학위논문, 1984.
2. 金鴻植, 韓國民俗大觀 2 - 日常生活·衣食住,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1980. (pp.650-651)
3. 朴明德, 安東地方 ㄷ字집에 關한 研究, 동양공전 논문집 제11집, 1988.
4. 徐京泰·金華峰, 「뜰집」平面的 行列間 分化에 關한 研究,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41집, 1996.
5. 申榮勳, 韓國의 살림집, 열화당, 1983. (pp.146-153)
6. 張聖浚, 安東 土溪洞의 住宅類型에 對한 研究, 대한건축학회지 22권 81호, 1978 4월.
7. 曹成基, 韓國 ㄷ字系 民家의 안마당에 關한 研究, 이광노교수 건축학 논총, 1993.
8. 崔永俊, ㄷ字型 家屋의 文化地理學的 解釋, 고려대 사대논집 10호, 1985.

1. *Introduction*

2. *Background*

3. *Methodology*

4. *Results*

5. *Discussion*

6. *Conclusion*

7. *References*

8. *Appendix*

9. *Index*

10. *Summary*

11. *Notes*

12. *Footnotes*

13. *Endnotes*

14. *References*

15. *Appendix*

16. *Index*

17. *Summary*

18. *Notes*

19. *Footnotes*

20. *Endnotes*

21. *References*

22. *Appendix*

23. *Index*

24. *Summary*

25. *Notes*

26. *Footnotes*

27. *Endnotes*

28. *References*

29. *Appendix*

30. *Index*

31. *Summary*

32. *Notes*

33. *Footnotes*

34. *Endnotes*

35. *References*

36. *Appendix*

37. *Index*

38. *Summary*

39. *Notes*

40. *Footnotes*

41. *Endnotes*

42. *References*

43. *Appendix*

44. *Index*

45. *Summary*

46. *Notes*

47. *Footnotes*

48. *Endnotes*

49. *References*

50. *Appendix*

51. *Index*

52. *Summary*

53. *Notes*

54. *Footnotes*

55. *Endnotes*

56. *References*

57. *Appendix*

58. *Index*

59. *Summary*

60. *Notes*

61. *Footnotes*

62. *Endnotes*

63. *References*

64. *Appendix*

65. *Index*

66. *Summary*

67. *Notes*

68. *Footnotes*

69. *Endnotes*

70. *References*

71. *Appendix*

72. *Index*

73. *Summary*

74. *Notes*

75. *Footnotes*

76. *Endnotes*

77. *References*

78. *Appendix*

79. *Index*

80. *Summary*

81. *Notes*

82. *Footnotes*

83. *Endnotes*

84. *References*

85. *Appendix*

86. *Index*

87. *Summary*

88. *Notes*

89. *Footnotes*

90. *Endnotes*

91. *References*

92. *Appendix*

93. *Index*

94. *Summary*

95. *Notes*

96. *Footnotes*

97. *Endnotes*

98. *References*

99. *Appendix*

100. *Index*

101. *Summary*

102. *Notes*

103. *Footnotes*

104. *Endnotes*

105. *References*

106. *Appendix*

107. *Index*

108. *Summary*

109. *Notes*

110. *Footnotes*

111. *Endnotes*

112. *References*

113. *Appendix*

114. *Index*

115. *Summary*

116. *Notes*

117. *Footnotes*

118. *Endnotes*

119. *References*

120. *Appendix*

121. *Index*

122. *Summary*

123. *Notes*

124. *Footnotes*

125. *Endnotes*

126. *References*

127. *Appendix*

128. *Index*

129. *Summary*

130. *Notes*

131. *Footnotes*

132. *Endnotes*

133. *References*

134. *Appendix*

135. *Index*

136. *Summary*

137. *Notes*

138. *Footnotes*

139. *Endnotes*

140. *References*

141. *Appendix*

142. *Index*

143. *Summary*

144. *Notes*

145. *Footnotes*

146. *Endnotes*

147. *References*

148. *Appendix*

149. *Index*

150. *Summary*

151. *Notes*

152. *Footnotes*

153. *Endnotes*

154. *References*

155. *Appendix*

156. *Index*

157. *Summary*

158. *Notes*

159. *Footnotes*

160. *Endnotes*

161. *References*

162. *Appendix*

163. *Index*

164. *Summary*

165. *Notes*

166. *Footnotes*

167. *Endnotes*

168. *References*

169. *Appendix*

170. *Index*

171. *Summary*

172. *Notes*

173. *Footnotes*

174. *Endnotes*

175. *References*

176. *Appendix*

177. *Index*

178. *Summary*

179. *Notes*

180. *Footnotes*

181. *Endnotes*

182. *References*

183. *Appendix*

184. *Index*

185. *Summary*

186. *Notes*

187. *Footnotes*

188. *Endnotes*

189. *References*

190. *Appendix*

191. *Index*

192. *Summary*

193. *Notes*

194. *Footnotes*

195. *Endnotes*

196. *References*

197. *Appendix*

198. *Index*

199. *Summary*

200. *Notes*

201. *Footnotes*

202. *Endnotes*

203. *References*

204. *Appendix*

205. *Index*

206. *Summary*

207. *Notes*

208. *Footnotes*

209. *Endnotes*

210. *References*

211. *Appendix*

212. *Index*

213. *Summary*

214. *Notes*

215. *Footnotes*

216. *Endnotes*

217. *References*

218. *Appendix*

219. *Index*

220. *Summary*

221. *Notes*

222. *Footnotes*

223. *Endnotes*

224. *References*

225. *Appendix*

226. *Index*

227. *Summary*

228. *Notes*

229. *Footnotes*

230. *Endnotes*

231. *References*

232. *Appendix*

233. *Index*

234. *Summary*

235. *Notes*

236. *Footnotes*

237. *Endnotes*

238. *References*

239. *Appendix*

240. *Index*

241. *Summary*

242. *Notes*

243. *Footnotes*

244. *Endnotes*

245. *References*

246. *Appendix*

247. *Index*

248. *Summary*

249. *Notes*

250. *Footnotes*

251. *Endnotes*

252. *References*

253. *Appendix*

254. *Index*

255. *Summary*

256. *Notes*

257. *Footnotes*

258. *Endnotes*

259. *References*

260. *Appendix*

261. *Index*

262. *Summary*

263. *Notes*

264. *Footnotes*

265. *Endnotes*

266. *References*

267. *Appendix*

268. *Index*

269. *Summary*

270. *Notes*

271. *Footnotes*

272. *Endnotes*

273. *References*

274. *Appendix*

275. *Index*

276. *Summary*

277. *Notes*

278. *Footnotes*

279. *Endnotes*

280. *References*

281. *Appendix*

282. *Index*

283. *Summary*

284. *Notes*

285. *Footnotes*

286. *Endnotes*

287. *References*

288. *Appendix*

289. *Index*

290. *Summary*

291. *Notes*

292. *Footnotes*

293. *Endnotes*

294. *References*

295. *Appendix*

296. *Index*

297. *Summary*

298. *Notes*

299. *Footnotes*

300. *Endnotes*

301. *References*

302. *Appendix*

303. *Index*

304. *Summary*

305. *Notes*

306. *Footnotes*

307. *Endnotes*

308. *References*

309. *Appendix*

310. *Index*

311. *Summary*

312. *Notes*

313. *Footnotes*

314. *Endnotes*

315. *References*

316. *Appendix*

317. *Index*

318. *Summary*

319. *Notes*

320. *Footnotes*

321. *Endnotes*

322. *References*

323. *Appendix*

324. *Index*

325. *Summary*

326. *Notes*

327. *Footnotes*

328. *Endnotes*

329. *References*

330. *Appendix*

331. *Index*

332. *Summary*

333. *Notes*

334. *Footnotes*

335. *Endnotes*

336. *References*

337. *Appendix*

338. *Index*

339. *Summary*

340. *Notes*

341. *Footnotes*

342. *Endnotes*

343. *References*

344. *Appendix*

345. *Index*

346. *Summary*

347. *Notes*

348. *Footnotes*

349. *Endnotes*

350. *References*

351. *Appendix*

352. *Index*

353. *Summary*

354. *Notes*

355. *Footnotes*

356. *Endnotes*

357. *References*

358. *Appendix*

359. *Index*

360. *Summary*

361. *Notes*

362. *Footnotes*

363. *Endnotes*

364. *References*

365. *Appendix*

366. *Index*

367. *Summary*

368. *Notes*

369. *Footnotes*

370. *Endnotes*

371. *References*

372. *Appendix*

373. *Index*

374. *Summary*

375. *Notes*

376. *Footnotes*

377. *Endnotes*

378. *References*

379. *Appendix*

380. *Index*

381. *Summary*

382. *Notes*

383. *Footnotes*

384. *Endnotes*

385. *References*

386. *Appendix*

387. *Index*

388. *Summary*

389. *Notes*

390. *Footnotes*

391. *Endnotes*

392. *References*

393. *Appendix*

394. *Index*

395. *Summary*

396. *Notes*

397. *Footnotes*

398. *Endnotes*

399. *References*

400. *Appendix*

401. *Index*

402. *Summary*

403. *Notes*

404. *Footnotes*

405. *Endnotes*

406. *References*

407. *Appendix*

408. *Index*

409. *Summary*

410. *Notes*

411. *Footnotes*

412. *Endnotes*

413. *References*

414. *Appendix*

415. *Index*

416. *Summary*

417. *Notes*

418. *Footnotes*

419. *Endnotes*

420. *References*

421. *Appendix*

422. *Index*

423. *Summary*

424. *Notes*

425. *Footnotes*

426. *Endnotes*

427. *References*

428. *Appendix*

429. *Index*

430. *Summary*

431. *Notes*

432. *Footnotes*

433. *Endnotes*

434. *References*

435. *Appendix*

436. *Index*

437. *Summary*

438. *Notes*

439. *Footnotes*

440. *Endnotes*

441. *References*

442. *Appendix*

443. *Index*

444. *Summary*

445. *Notes*

446. *Footnotes*

447. *Endnotes*

448. *References*

449. *Appendix*

450. *Index*

451. *Summary*

452. *Notes*

453. *Footnotes*

454. *Endnotes*

455. *References*

456. *Appendix*

457. *Index*

458. *Summary*

459. *Notes*

460. *Footnotes*

461. *Endnotes*

462. *References*

463. *Appendix*

464. *Index*

465. *Summary*

466. *Notes*

467. *Footnotes*

468. *Endnotes*

469. *References*

470. *Appendix*

471. *Index*

472. *Summary*

473. *Notes*

474. *Footnotes*

475. *Endnotes*

476. *References*

477. *Appendix*

478. *Index*

479. *Summary*

480. *Notes*

481. *Footnotes*

482. *Endnotes*

483. *References*

484. *Appendix*

485. *Index*

486. *Summary*

487. *Notes*

488. *Footnotes*

489. *Endnotes*

490. *References*

491. *Appendix*

492. *Index*

493. *Summary*

494. *Notes*

495. *Footnotes*

496. *Endnotes*

497. *References*

498. *Appendix*

499. *Index*

500. *Summary*

501. *Notes*

502. *Footnotes*

503. *Endnotes*

504. *References*

505. *Appendix*

506. *Index*

507. *Summary*

508. *Notes*

509. *Footnotes*

510. *Endnotes*

511. *References*

512. *Appendix*

513. *Index*

514. *Summary*

515. *Notes*

516. *Footnotes*

517. *Endnotes*

518. *References*

519. *Appendix*

520. *Index*

521. *Summary*

522. *Notes*

523. *Footnotes*

524. *Endnotes*

525. *References*

526. *Appendix*

527. *Index*

528. *Summary*

529. *Notes*

530. *Footnotes*

531. *Endnotes*

532. *References*

533. *Appendix*

534. *Index*

535. *Summary*

536. *Notes*

537. *Footnotes*

538. *Endnotes*

539. *References*

540. *Appendix*

541. *Index*

542. *Summary*

543. *Notes*

544. *Footnotes*

545. *Endnotes*

546. *References*

547. *Appendix*

548. *Index*

549. *Summary*

550. *Notes*

551. *Footnotes*

552. *Endnotes*

553. *References*

554. *Appendix*

555. *Index*

556. *Summary*

557. *Notes*

558. *Footnotes*

559. *Endnotes*

560. *References*

561. *Appendix*

562. *Index*

563. *Summary*

564. *Notes*

565. *Footnotes*

566. *Endnotes*

567. *References*

568. *Appendix*

569. *Index*

570. *Summary*

571. *Notes*

572. *Footnotes*

573. *Endnotes*

574. *References*

575. *Appendix*

576. *Index*

577. *Summary*

578. *Notes*

579. *Footnotes*

580. *Endnotes*

581. *References*

582. *Appendix*

583. *Index*

584. *Summary*

585. *Notes*

586. *Footnotes*

587. *Endnotes*

588. *References*

589. *Appendix*

590. *Index*

591. *Summary*

592. *Notes*

593. *Footnotes*

594. *Endnotes*

595. *References*

596. *Appendix*

597. *Index*

598. *Summary*

599. *Notes*

600. *Footnotes*

601. *Endnotes*

602. *References*

603. *Appendix*

604. *Index*

605. *Summary*

606. *Notes*

607. *Footnotes*

608. *Endnotes*

609. *References*

610. *Appendix*

611. *Index*

612. *Summary*

613. *Notes*

614. *Footnotes*

615. *Endnotes*

616. *References*

617. *Appendix*

618. *Index*

619. *Summary*

620. *Notes*

621. *Footnotes*

622. *Endnotes*

623. *References*

624. *Appendix*

625. *Index*

626. *Summary*

627. *Notes*

628. *Footnotes*

629. *Endnotes*

630. *References*

631. *Appendix*

632. *Index*

633. *Summary*

634. *Notes*

635. *Footnotes*

636. *Endnotes*

637. *References*

638. *Appendix*

639. *Index*

640. *Summary*

641. *Notes*

642. *Footnotes*

643. *Endnotes*

644. *References*

645. *Appendix*

646. *Index*

647. *Summary*

648. *Notes*

649. *Footnotes*

650. *Endnotes*

651. *References*

652. *Appendix*

653. *Index*

654. *Summary*

655. *Notes*

656. *Footnotes*

657. *Endnotes*

658. *References*

659. *Appendix*

660. *Index*

661. *Summary*

662. *Notes*

663. *Footnotes*

664. *Endnotes*

665. *References*

666. *Appendix*

667. *Index*

668. *Summary*

669. *Notes*

670. *Footnotes*

671. *Endnotes*

672. *References*

673. *Appendix*

674. *Index*

675. *Summary*

676. *Notes*

677. *Footnotes*

678. *Endnotes*

679. *References*

680. *Appendix*

681. *Index*

682. *Summary*

683. *Notes*

684. *Footnotes*

685. *Endnotes*

686. *References*

687. *Appendix*

688. *Index*

689. *Summary*

690. *Notes*

691. *Footnotes*

692. *Endnotes*

693. *References*

694. *Appendix*

695. *Index*

696. *Summary*

697. *Notes*

698. *Footnotes*

699. *Endnotes*

700. *References*

701. *Appendix*

702. *Index*

703. *Summary*

704. *Notes*

705. *Footnotes*

706. *Endnotes*

707. *References*

708. *Appendix*

709. *Index*

710. *Summary*

711. *Notes*

712. *Footnotes*

713. *Endnotes*

714. *References*

715. *Appendix*

716. *Index*

717. *Summary*

718. *Notes*

719. *Footnotes*

720. *Endnotes*

721. *References*

722. *Appendix*

723. *Index*

724. *Summary*

725. *Notes*

726. *Footnotes*

727. *Endnotes*

728. *References*

729. *Appendix*

730. *Index*

731. *Summary*

732. *Notes*

733. *Footnotes*

734. *Endnotes*

735. *References*

736. *Appendix*

737. *Index*

738. *Summary*

739. *Notes*

740. *Footnotes*

741. *Endnotes*

742. *References*

743. *Appendix*

744. *Index*

745. *Summary*

746. *Notes*

747. *Footnotes*

748. *Endnotes*

749. *References*

750. *Appendix*

751. *Index*

752. *Summary*

753. *Notes*

754. *Footnotes*

755. *Endnotes*

756. *References*

757. *Appendix*

758. *Index*

759. *Summary*

760. *Notes*

761. *Footnotes*

762. *Endnotes*

763. *References*

764. *Appendix*

765. *Index*

766. *Summary*

767. *Notes*

768. *Footnotes*

769. *Endnotes*

770. *References*

771. *Appendix*

772. *Index*

773. *Summary*

774. *Notes*

775. *Footnotes*

776. *Endnotes*

777. *References*

778. *Appendix*

779. *Index*

780. *Summary*

781. *Notes*

782. *Footnotes*

783. *Endnotes*

784. *References*

785. *Appendix*

786. *Index*

787. *Summary*

788. *Notes*

789. *Footnotes*

790. *Endnotes*

791. *References*

792. *Appendix*

793. *Index*

794. *Summary*

795. *Notes*

796. *Footnotes*

797. *Endnotes*

798. *References*

799. *Appendix*

800. *Index*

801. *Summary*

802. *Notes*

803. *Footnotes*

804. *Endnotes*

805. *References*

806. *Appendix*

807. *Index*

808. *Summary*

<